

오늘의  
地方分校  
施策

이대로  
좋은가

金

熙

執(高麗大 조치원分校 文理大學長)

I. 當局의 分校施策은 成功的인가?

1970년대 말부터 당시 행정부는 서울에의 인구 집중 원인 중 하나가 이른바 유명대학의 대부분이 서울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그 해결책의 하나로써 서울 소재의 대학들에게 地方分校를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그래서 대다수의 私立綜合大學들이 서울을 벗어난 지역에다 새로운 터를 닦고 세칭 분교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상 당초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결과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듯하다.

우선 分校의 位置概念을 서울市界로 설정함으로써 대부분의 대학들이 分校를 서울을 겨우 벗어난 近郊에 세워 오히려 소위 수도권이라는 개념으로 서울지역을 확대하고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집중의 잠재요인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東國大의 경주분교, 高麗大의 조치원분교, 建國大의 충주분교, 延大의 원주분교, 檀國大의 천안분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울의 생활권으로 바뀐 京畿道에다 分校를 설립함으로써 이름만의 地方分校일 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東國大의 경주분교를 제외한 天安, 烏政院, 忠州分校 등에 재학하고 있는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그 상당수가 매일 서울에서 통학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일이다.

구체적인 예로, 高麗大의 조치원 캠퍼스의 경우, 재학생의 37%가 서울에 현주소를 두고 있는 형편이고 그 37%의 90% 이상이 매일 장거리 기차통학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忠州나 原州도 엇비슷할 것이고, 天安의 경우는 아마 100%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이처럼 서울서 두려 2시간에 가까운 장거리까지도 통학하고 있는 입장이고 보면 서울 근교에 있는 地方分校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대학당국에서 아직도 제

정형편상 충분한 기숙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각종 문화시설이 미비된 지방도시의 환경 때문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교부의 地方分校施策의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다.

## II. 分校 發展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大學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주어진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分校發展에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애로점은 모두가 비슷하리라고 여긴다. 따라서 大學自體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가급적 論外로 하고 當局의 施策上の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다.

첫째로, 財政지원상에 있어서 정부는 地方國立大에 단 집중적인 투자를 우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학의 캠퍼스는 거창하고 시설도 훌륭한 편이지만 이에 비하여 사립 지방대학과 분교는 상대적으로 초라한 꼴이 되고 말았다.

문교부에서 이당초 지방 분교 설립을 유도해 놓고 하등의 보완적인 조치나 후속적인 지원이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이므로 분교의 투자재원의 확보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물론 증과나 증원된 학생등록금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反論이 있을지 모르나 大學新設에 따르는 투자는 알다시피 그 규모가 원래 엄청나기 때문에 도저히 自體充當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학교부지 확보상의 행정적 편의는 물론이고 시설투자에 따르는 용자금 주선 같은 政策當局이나 政府關係機關의 배려가 반드시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사실 文教豫算도 國稅나 教育稅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면 國立大學만의 중점지원이란 그 公平性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다. 가까운 日本의 경우는 私立大學에 매년 國庫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다음으로는 增科·增員에 대한 일관된 文教方

針이 요구되고 있다는 문제이다. 서울에 위치한 既存大學에 있어서는 增科나 增員이 전혀 불가하다는 文教方針에는 변함없고 일관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地方分校에 따라서는 다분히 그 기준을 헤아리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듯하다.

사실상 서울 인구 억제효과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는 增科施策의 차원에서 볼 때 그 목적에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서울 近郊의 地方分校에는 신청한 學科와 增員을 허용하고, 高麗大의 조치원분교나 延大의 原州分校 경우 1984 및 85학년도 신청분을 뚜렷한 명분도 밝히지 않은 채 全面保留한 사실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낀다.

따라서 當局은 앞으로 增科·增員의 기본원칙을 세울 때 서울 소재 大學의 地方分校일지라도 서울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특별한 배려를 한다는 기준을 세워야만 地方分校의 活性化를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번째의 地方分校 운영상의 難點은 우수한 教授陣의 확보문제이다. 大學教育의 成敗는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시설의 優劣보다는 훌륭한 教授와 學生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지방 소재의 分校는 물론이고 일반 대학에 있어서의 優秀한 教授要員의 確保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한국 특유의 학문적인 後進性의 일면인 것이다.

우선 權力構造부터가 中央集權主義 형태로 서울을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고, 따라서 經濟, 文化, 教育의 거의 전부가 서울에 集中되어 있는 현실이기에 教授들의 지방근무 기피경향을 教授들에게만 탓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 언젠가는 地方自治制가 실시되고 점차 地方文化 육성책이 강화되면 이러한 서울 偏重의 價値指向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教授難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난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文教當局은 잠정적인 편법일지라도 地方大學과 分校에 근무하는 教授들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 즉 海外研修 파견이나 연구비 배정 등과 같은 특별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 Ⅲ. 종합적인 結論

이상과 같이 地方分校 活性化에 관련되는 몇 가지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함에 있어 주로 文教政策上으로 나타난 것들과 그에 따른 改善方向을 생각해 보는 형식을 취했다.

위에서 언급한 地方分校에 대한 支援이나 育成方案 등은 우리들의 어려운 국가사정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당장 조치하기 어려운 점들이 연관되어 있을지 모르나 노력만 한다면 별로 어려움이 없이도 시행 가능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具體的인 地方分校 活性化方案에 못지 않게 긴 안목으로 보아 大學教育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새로이 검토하고 개선해 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본다.

우선 서울에 소재한 大學은 무조건 우수하고 좋다는 현재의 一般人들의 認識과 大學生들의 의식구조부터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한 제반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까운 日本은 물론이고 서구의 대부분의 大學社會에서는 우리처럼 首都圈에 위치한다고 좋은 大學이고 어느 산간벽지의 시골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認識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美國의 경우는 종래의 名門校였던 하버드나 콜럼비아 대학 등이 점차 노쇠현상을 드러내면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中·西部의 신설대학이나 또는 分校형태의 大學이 有名

校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전통의 地方分權主義의 사고방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문화해택이 平均化되어 있다는 사실과 대부분의 신설대학이 자연환경이 좋고 최신식 教育施設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教授의 報酬面에서도 기존 대학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가령 著名教授가 어느 곳, 어느 학교에 있는 간에 그 實力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각종의 오염과 범죄로 위협받는 大都市에 몰려가겠는가!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제 아무리 실력 있고 유명한 교수나 학생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가 시골의 어느 地方大學에 몸담고 있을 때는 별수없이 그 격이 떨어지는 教授나 학생이 될 뿐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地方分校의 育成問題는 단순히 地方分校를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된다. 이것은 全地方大學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權力構造上的 地方分權化, 地方文化와 社會發展, 나아가서 地方經濟의 育成·發展과 그 뒷받침에 의해서만 비로소 實效性 있게 論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

大學教育의 發展은 결코 단시일만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라진대 百年大計를 전제해야 하는 大學教育, 특히 地方大學의 육성문제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나 試行錯誤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